PACNET

북한과의 군비통제 논의의 기회와 과제

BY 히데오 아사노

히데오 아사노(*hideoasano4810@gmail.com*)는 몬터레이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에서 비확산 및 테러리즘 연구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풀브라이트 장학생이다.

*PacNet*시리즈는 미일한 *3*국 차세대 지도자 대화의 일환으로 이 중요한 파트너십을 어떻게 육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창의적 사고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개발로 인해 북한 정권에 대한 핵 위험 축소 및 잠재적 군비 통제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미국의 오랜 대북 비핵화 접근 방식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았고, 심지어 더욱 진전시켰다.

한 가지 대안으로, 북한과 위험 축소 및 군비 통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핵전쟁을 방지하고 지역 군비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미국의 동맹 관계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도 있다.

핵 위기 고조의 위험

지난 몇 년간 북한은 일련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해 왔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은 전술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첨단 형태의 하드웨어를 통해 북한은 적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핵 선제 공격을 포함할 수 있는 전쟁 계획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로, 북한 정권은 초기 단계에서 전역 핵미사일을 사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적군과 시설을 파괴하는 동시에 미국 본토에 대한 ICBM 사용을 위협함으로써 미국이 전면적인 보복을 가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계획이 북한의 미사일 부대, 나아가 임박한 핵 공격이 감지될 경우 북한 지도부에 대한 잠재적인 공격을 포함하는 미한 군사 전략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다. 이는 북한 정권이 자국의 핵 시스템이나 정권이 파괴되기 전에 핵 공격을 개시할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북한의 핵정책법은 북한의 지도부나 지휘통제가 위협받는 경우 핵 공격을 허용한다. 이러한 역동성은 위기 상황이나 북한과의 전통적인 갈등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은 핵 위기 고조의 여지를 더 많이 만들 것이다.

그러한 핵 위험은 일본 정부에게도 무관하지 않다. 북한이 긴장 상황을 핵 분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다면 북한의 핵 미사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영토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핵 위험을 감안할 때 위험 축소 조치를 추구하는 것은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지휘통제부에 대한 무장해제 공격 및/또는 북한 지도부의 참수를 포기하도록 전쟁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양국은 그 대가로 북한에 야전 사령관에게 핵무기 사용 권한을 위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하고, 양자간 전략대화를 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주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및 능력을 제한하는 잠재적 군비 통제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 이는 긴장 고조와 비용이 많이 드는 군비 경쟁을 방지하는 데 있어 모든 당사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두 동맹국들이 직면한 디커플링과 재보장의 문제

핵 위험 축소 및 군비 통제 조치를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을 참여시키면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려면 지역 동맹국들에게 국방 공약을 계속해서 확신시켜야 한다.

자주 논의되는 것처럼, 북한의 ICBM 개발은 한국에 대한 '디커플링'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만일 한국에 우발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미국 본토에 대한 핵 ICBM 공격을 두려워하여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러한 시나리오에서 미국 정부는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희생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우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미국이 재래식 무기로 보복하더라도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미국의 재래식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핵 우선 사용 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ICBM 능력을 현대화하고 확장함에 따라 이러한 디커플링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 미사일이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ICBM 능력을 보유하는 한 계속해서 한국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더불어 일본에도 확장 핵 억지 의지가 신뢰할 만하다는 점을 재확인해야 한다. 일본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전쟁이 다시 발발할 경우 북한이 핵 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여 일본이 일본에 있는 미국의 군사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미일 동맹을 깨뜨릴 수 있는 또 다른 디커플링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크게 제한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와 북한 정권 간의 합의에서 북한의 MRBM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면 일본은 이에 대해 미국의 재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미국이 협상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ICBM을 제한하려 한다면 한국과 일본을 안심시키는 것의 필요성도 중요할 수 있다. 미국 본토에 대한 ICBM 위협을 줄이면 이론적으로 디커플링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지만,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북한이 전역 범위의 핵 미사일을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협정이 그들의 안보 이익을 무시한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의 안보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측면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보장인 부정적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의 잠재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미국 동맹국들은 이를 확장 핵 억지력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훼손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들에 있어 미국은 핵 위험 감소와 군비 통제를 추구하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요컨대 미국의 안보 보장 재확인의 문제는 세 당사국 모두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대북 억지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 문제에 대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적절하게 3자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과 핵위험 축소 및 군비 통제 조치를 개시하는 방식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 축소 및 군비 통제 노력은 단순히 실패하거나 일본이나 한국 중 하나 또는 둘 다의 안보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협상에 들어가기 전과 협상 중에 동맹의 조율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확장억제 회담 격상 사례

따라서 핵 위험 축소와 군비 통제를 위한 기회를 포착하려면 광범위한 미일한 대화가 필요하다. 3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따른 잠재적인 이익과 안보상의 우려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과 한국도 각자의 확장억제 회담 의제에 핵위험 축소와 군비 통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미일 확장억제대화 및 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 이러한 대화는 한국이나 일본의 학자들을 각각의 대화에 초청함으로써 1.5트랙의 3자 대화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이러한 문제에 대한 미일한 3자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3국은 북한과 함께 핵 위험 축소 및 군비 통제 조치를 진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확장 억제를 유지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과 함께 위험 축소 및 군비 통제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전 세계 핵 비확산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임시 조치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세 정부는 북한은 물론 국내외 청중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균형 있고 숙고된 정치적 수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비핵화 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점차적으로 적대감을 줄이고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를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제한은 물론 태세적 조치, 핵실험 및 개발 동결, 핵분열성 물질 생산 억제 등 다양한 옵션을 유연하게 결합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을 고려할 때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야심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다. 동시에, 그러한 긴장과 지역적 군비 경쟁은 오늘날 핵 위험을 상당히 고조시켰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핵 위험 축소와 군비 통제를 위한 3자 대화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다.

*PacNet*의 논평과 답변은 해당 작성자의 견해를 나타냅니다. 대안적인 관점을 언제나 환영하고 장려합니다.